

못잊을 베틀 이라크 시절

權 燦
〈駐 쿠웨이트 대사〉

1. 외교단 차석모임

유수같은 세월 속에 공식생활 어언 20여개 성상이 흘렀다. 그중 대부분의 세월을 해외공관에서 보내다 보니 주로 친하게 접촉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주재국의 외교단 친구들이다. 1주에도 외교단행사가 3~4회 정도 리셉션과 만찬의 초청이 있어 연일 똑같은 얼굴들을 이곳 저곳 연회장에서 만나는데 행여 매일 보이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날은 군중 속에서 그 친숙한 얼굴을 찾기 마련이다.

내가 근무하던 이라크에서 유독히 나와 친숙하고 화제가 풍부하던 친구가 한명 있었다. 그는 파키스탄 대사관의 야민·칸 참사관이었는데, 땅딸보에 배와 눈이 유독히 튀어 나오고 입술이 유들유들하게 생겨 입심이 아주 좋고 외관상 그를 보기만 해도 웃음이 터져나올 지경의 인물이었다.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는 아랍식 특유의 영어로 이슬람교리를 너무 강경히 대변하기에 거부감이 일어날 정도였는데, 요사이의 우리 모임에 그가 없으면 심심할 정도가 되었다.

우리가 자주 만난 모임은 주로 외교단 차석모임 (Deputy meetings)이었는데,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튀니지, 요르단, 일본 등 모슬렘국가 외교관들이 많았고, 그들의 솔직한 견해표명과 대화 때의 진지한 태도로 외교단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또한 친아랍적인 성향 때문에 아랍에 관한 생생한 1급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 그들과의 교제를 누구나 원하고 있었던 터였다.

내가 특별히 좋아했던 야민·칸 참사관은 이슬람교리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뿜고 열을 올리는 적극적인 시아파 모슬렘이었다. 허나 이란의 호메이니옹 이야기가 나올 때는 사정없이 공격적인 면도 있었다.

또 야민·칸 참사관은 엔터테인을 좋아해서 한달에 한번씩 자기 집에 동료들을 초청하고 파키스탄 특유의 음식으로 동료들을 즐겁게 대접하곤 했다. 특히 그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부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은 만식의 부인이 나와서 포도주를 손님께 일일이 대접하며 상냥한 인사를 교환하곤 했다. 당당시 부인은 남편보다 20세 연하로 30을 갓넘어 보였는데, 연회모임 초청, 음식, 예절 등에 철저하고 손님들을 특별히 기

쁘게 해주는 우아한 미소와 대화법을 익히고 있었다.

이제쯤 그들은 다 자국의 공관장이 되어 어느 낯설은 지역에서 모임을 갖고 있을까? 국가끼리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외교관은 주재국의 외무부에 불려가서 난데없는 항의도 받고 분풀이도 당하는 어려운 직업임에도 이를 인내로 소화하고 간결한 답변을 하고 나와야 하는 소위 전문 직업인이다. 또 어떤 경우에 처해도 나라체면 때문에 궁색함을 숨기고 의연해야 하고, 찬물을 마시고 나오면서도 불고기를 먹은 양 이빨을 쭈시면서 웃고 나와야 하는 배우같은 직업이다.

또 지나고 생각하니 외교관은 자국의 상품을 멋지게 선전할 줄 아는 일류 세일즈맨이 되어야 하고 또 때로는 정치가처럼 정치센스와 배짱도 있어야 한다. 즉, 국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진실인양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의 말대로 「외교는 나라를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애국적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코메디언처럼 농담과 재치있는 화술로 즉흥연설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내 경험으로는 외교관 직업은 법률을 전공한 율사 보다는 정치를 공부한 학도가 더 잘 해낼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이야기를 좋아하고 화제가 많은 이야기꾼이면 더 좋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녁 만찬연회에 초청되어 가면 위스키 한잔을 마시면서 식사가 준비될때까지 1~2시간은 계속 이야기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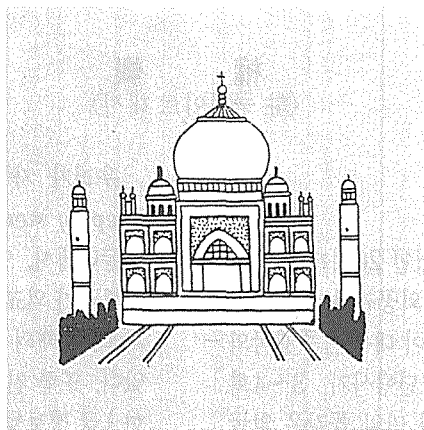
사실인즉 외교관 경험해 보니 때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외교의 위력은 그것을 실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실감하지 못한다. 외교에는 수십개 사단의 군사력보다 더 큰 위력이 분명 잠재해 있는 것이다. 적은 예로서 양국간의 관계에서

아직 길이 뚫려 있지 않았거나 또는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로 남아있을 때 외교관이 그 길을 한번 스치고 지나가기만 하면 그 길이 순식간에 편안한 아스팔트길로 변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엄청난 외교의 위력을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러한 외교위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단 말인가? 우선 어떤 특정사안의 교섭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든가, 신뢰성과 약속 등이 제일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그리고 외교를 직접 수행하는 외교관의 세련된 논리와 명쾌한 화술이 큰 몫을 차지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내 경험으로 보면 어떤 사안 이든간에 외교협상에서 실리를 먼저 내세우면 안된다. 자기 이익만 챙기면 분위기를 깨기 때문이다. 실리 앞에 명분을 먼저 내세워야 한다. 또 이러한 명분은 정의로운 국제사회의 도덕적 기준에도 합치되어야 한다. 강한 명분은 때로는 상대방을 의외로 쉽게 설득할 수 있고, 양국간의 이해충돌이 협력의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외교는 위협

이나 강압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정과 논리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마음을 우선 열어주는 기술이다. 양자의 이해갈등을 우선 순화하는 작업이 급선무이다.

한때 서구사회에서는 외교가 예술(Art)인가, 과학(Science)인가의 열띤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정치가 1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인간행위라고 한다면 외교는 단지 1년 또는 길어야 3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국가간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외교는 당연히 오늘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국가간의 이상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높은 예술적 감각과 전문적인 과학의 주도면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아, 중동의 여름은 얼마나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웠던가?

지루하던 긴 모래사막 여름도 야민·칸 친구들과 어울려 실컷 대화를 하고 나면 좀 쉽게 지나가곤 한다. 무미건조한 일상의 업무에서 유쾌한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항상 사막속의 오아시스를 만난듯 반가운 일이다. 이들이 없었던들 그 더운 열기의 긴 중동 여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

2. 살인명령 하달

8년간의 지루한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라크에 부임한 필자는 그 당시 매일매일 일어나던 전황보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초단파 라디오를 사무실과 집에 설치해 놓고 일과 중 많은 시간을 양국간의 전투상황 청취와 또 이를 둘러싼 아랍권 세계의 움직임과 반응, 또 미·소·영국 등 강대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적은 정보라도 신속히 입수하여 종합 판단하고 또 그 대응책을 자체적으로 세우던 때였다. 특히 그 무시무시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도가 연일 국내외 신문에 터져나오고 있을 때 였으니 말이다.

어느날 아침 출근하니 이른 시간에 야민·칸 참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야기인즉, 오늘 저녁에는 이란의 미사일이 한발 수도에 날아올 것이고, 내일 새벽에는 이란의 폭격기 대열이 내습할 것인즉 피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그 당시 매일 전황보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때인지라 조그마한 뉴스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새로운 정보에 큰 귀를 기울이던 때였다.

실상인즉 그 당시 외교가의 정보통이 대체로 아랍권 국가인 파키스탄,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쿠웨이트 외교관들이었다.

우리는 야민·칸의 연락을 받고 긴급히 직원회의를 소집,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안전」이 최대의 국익으로 결론을 내리고 당직1명을 남긴채 전직원들이 가족

을 챙겨서 요르단 국경지역 팔루자 도심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그런데 오후 늦게 그곳에 도착해 보니 친구 야민·칸의 가족을 비롯해서 많은 외교계 인사들이 이미 와서 팔루자 호텔로비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아주 반가웠고 생존의 희열을 함께 나누었다. 우리는 그들과 어울려 밤 늦게까지 전쟁의 무용론에서 이란·이라크전의 득실, 중전전망에 대하여 토론하며 지루한 시간을 때웠다.

우리는 전쟁지역에서의 우정을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 또 우리는 모두 마음을 열고 깊은 우정 속에서 종교전의 잔인함과 종교의 반사회적, 반국가적 역할 및 영향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면서 보낸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깊이 마음속에 보배처럼 남아있다. 그날 밤 늦게 우리는 이란측의 미사일이 바그다드 수도에 날아와서 수십명의 인명을 앗아 갔다는 소식을 듣고 피흘리는 이픔을 함께 하였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야민·칸 집에서 만찬이 있던 저녁이었다. 30여명의 내객들은 식사전 칵테일을 즐기고 있던 중이었는데, 건너편 거실에서 갑자기 큰 북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손님들은 일제히 북소리 나는 곳으로 바라 보았는데, 영국 참사관 에드워드와 주인 야민·칸과의 입싸움이 붙어 야민·칸이 흥분해서 팔을 걷어 붙이고 마구 소리치르고 있지 않은가.

그 당시 외교가의 주 화제는 이란의 호메니옹이 영국인 루시디에 대해 살인 명령을 내린지 며칠 되지 않았던 시기여서 자연히 대화는 그 쪽으로 쏠렸다.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 시의 세계라고 한다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초적인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념과 종교를 초월해서 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가 있을진대, 어찌 이란의 한시적인 지도자에 불과한 호메니옹이 하느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날 저녁 초대 되었던 모든 나라의 외교관들은 동일한 의견과 감정으로 호메니옹의 오만 방자한 그의 살인명령 하달

에 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야민·칸의 지론은 완전히 달랐다. 모슬렘은 일생에 한번 모슬렘으로 서약하면 평생 죽는 날까지 모슬렘이어야 하며, 종교적 전향은 불가능하고, 행여 중도에 이슬람을 배반한다면 그는 인간으로서 끝장인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슬렘으로서 그 종교의 창시자인 모하메드에 대한 비난은 모독죄로서 형제의 모슬렘이 그를 처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평소 이슬람 교리의 경직성은 가끔 들어온 바 있었으나, 인간생명의 고귀함을 부인할 정도의 주장에는 모두 아연하였다.

서구 나라와 아시아 나라 외교관들이 처음에는 유도성 질문으로 소위 그 「살인명령」에 대해 토론하였으나, 양보없는 일방적인 야민의 지론에 대해 결국 부딪히게 되고 급기야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태에 이르러 모슬렘 교도인 야민·칸을 극도로 흥분케 한 셈이었다. 이란의 지도자가 어찌하여 자국 국민도 아닌 제3국 국민에 대하여 감히 살인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고 의기소침하여 진술한 이야기까지 나온 셈이다. 그것도 시 한편의 발표로 말이다.

그 다음날 호메니옹의 살인부대가 영국에 잠입하기 위하여 리비아 트리폴리에 도착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그날 저녁 손님으로 초대된 모든 내방객들은 진실로 아연분개하고 국제정치의 냉엄함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다. 한편 야민·칸의 입장으로서는 외교 못지 않게 이슬람교리의 방어가 표면적으로 얼마나 절실했던가고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아랍식 만찬석상에서 어설픈 건배로 서로 마주보며 씩 웃고 말았다. 이슬람의 상징으로 한손에 코란과 또 한손에 칼을 쥐고 있는 그 종교의 양면성을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끝내 우리는 살인명령에 대해서는 도무지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3. 전쟁승리와 이별

주재국 외교단에 방글라데시 참사관 친구가 있었는

데, 그도 같은 성씨의 알리·칸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그는 야민·칸 참사관의 집안 친척으로서 옛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같은 나라였을 때 함께 파키스탄 외무성에서 일한 동료였다. 그후 나라가 2개국으로 분리됨에 따라 야민·칸은 파키스탄, 알리·칸은 방글라데시 외무성으로 나누어졌지만, 지금도 옛정을 잊지 못하여 항상 붙어다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칸을 구별하기 위해 「방글라·칸」 또는 「파키스탄·칸」으로 불렀다. 그런데 어느날 정기모임에 「방글라·칸」이 보이지 않아 왜 연고인가고 물어보았더니 부인이 목욕탕에서 넘어져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지는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다는 얘기가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중동의 열대성 사막 기온 속에 열리는 가든파티에서는 대낮의 높은 지열 때문에 늦은 밤에도 기온은 35도 이상을 유지해 후끈거리는 열기로 땀을 흘리며 시원한 아이스커피로 더위를 견디곤 하는데, 「파키스탄·칸」은 누구보다도 더위를 잘 견디곤 했다. 또 그는 술을 폭주하곤 했는데, 술이 취하면 그는 평소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토해내고 주재국 고위층 인사들의 욕도 막무가내 해댔다.

이라크에는 외교단이 그 나라 수도 밖으로 어디를 가려면 *Traffic permit*를 받아야 하는데 외무성에 *note*를 보내면 1주일씩 기다려야 허가가 나오고 또 때로는 아예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이주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였다. 마치 18세기 영국의 구약법인 「거주제한법」 같은 것이어서 그 사회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 법에 의해 억압당한 불쾌한 경험을 갖고 있었으므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었다. 이 까다로운 절차에 대해서도 우리는 외교단모임에서 화제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할 때도 있었다.

8월의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였다. 길거리에 세워둔 차를 타고 나오다가 운전대 핸들이 어찌 뜨거운지 손바닥이 불에 타듯 물질이 생기기도 했다. 이 더운 여름에 중동지역을 날으는 무쇠비행기도 더위에 삭아서 감가상각이 2배로 늘었다고 했다.

어느날 갑자기 시내 중심가에 사람이 운집하기 시작했다. 방송에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었다. 이라크 후세인대통령이 이란의 호메이니옹에게 승리했다는 것. 연일 퍼부은 도시 미사일로 이란의 테헤란 수도가 축받이 되었고, 도시인들은 오래전부터 수도를 떠나서 더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날이 바로 1988년 8월 8일이었다. 300만 바그다드 시민들은 모두들 거리로 뛰어나와 온종일 공포탄을 쏘고 축제분위기로 휩쓸었다.

우리 공관직원들도 자동차에 분승하여 시내구경을 나갔는데, 이라크시민들이 거리마다 큰 물통을 준비해 놓고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세례를 퍼부었다. 이것은 일종의 아랍식 축하의 표시라는 것이었다. 1주내내 이러한 축제분위기는 큰 거리를 뒤덮었고, 외교단에서도 그 지루한 전쟁이 드디어 끝나, 이제는 더 이상 공습 정보와 공포의 도시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을 것이니 정말 기분들이 다 좋았다.

우리 공관은 주재국에 축하공한을 보내고 그해에는 한·이라크 공동위원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또 한편 전쟁승리를 축하하며 그 기념으로 양국관계를 정상화하자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우선 이라크측은 공동위원회 개최가 서울에서 개최된다면 정부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청신호를 보내왔다. 회의 일정을 그해 11월로 잡아놓고, 주재국의 대표단 구성을 촉구했다. 10월말경 우리 공관은 주재국의 회의 대표단장인 건설부장관을 위시하여 대표단 전원을 오찬에 초청하고, 회의의 토의내용 설명과 함께 양국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외교관계수립을 재차 촉구하며, 외교관계 수립후의 양국간 경제협력범위에 대해서도 브리핑해 주었다.

드디어 일은 성사되어 11월 중순 서울에서 양국간 공동위원회 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되었고 필자도 실무대표로 참석하게 되었다. 양국간 공동위원회회의의 현저한 성과로 그 이듬해인 1989년 7월에 정식으로 양국간 국교가 수립되었다. 그 때는 서울에서 당시 외무

장관이 참석하여 외교관계수립절차에 정식 서명하고, 그날 정오를 기해서 바그다드와 서울에서 동시에 공동성명 형식으로 만천하에 발표하였다. 이로써 거의 10년간의 바그다드 총영사관이 드디어 이라크대사관으로 승격되었고, 그날밤 바빌론 호텔에서 열린 축하리셉션에서 당시 최호중장관님의 감격어린 축하말씀은 아직도 우리의 귓전에 생생하다. 이날은 우리의 중동 외교가 큰 꽃을 피우던 날이었다.

오래전 바그다드에는 북한의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북한이 비밀리에 이란과의 무기판매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에 관한 정보가 꼬리를 잡히면서 북한 공관원들이 전원 철수당하고, 그 대신 한국과의 영사관계가 수립되어 양국간 제한된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또 이 어찌된 운명의 장난인가? 그날로부터 1년이 채되지 못하여 인류문화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평야에는 또 다른 전쟁의 불길이 치솟았던 것이다. 이라크 탱크부대가 이란과의 승전에 힘입어 그 기세로 1990년 8월 2일 새벽 인접국 쿠웨이트를 침공해 들어간 것이다.

이래서 우리는 한지역 공관근무기간에 너무나도 뜻밖의 전쟁을 두번씩이나 경험했고,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그속에서 외교관들은 마치 중군기자들처럼 사선을 넘으면서 국익수호를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만 했다.

한국인 교포 1,600여명을 전쟁터에서 무사히 철수시키고, 맨 나중에 우리 공관원들은 KAL특별기로 맨몸으로 빠져나왔다. 전쟁중 너무나 경황이 없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들었던 외교단 동지들에게 연락도 못하고 우리는 뿔뿔이 헤어진 셈이다. 또 어느 공관에서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그때의 이름다운 추억이 마치 수십년전의 일인양 느껴진다. 불타는 중동의 사막 땅에 알라의 축복을. 「알 함두릴라」 ♣